

## 고객의, 고객에 의한 아파트 아파트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광고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집, 10년 뒤를 내다보는 인테리어, 자연스러운 주방 등 내부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 환경으로는 차별성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건설사들의 판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최첨단 인테리어, 다양한 공간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에디터 | 하유정 · 사진 | 고하진





1·4 벽산 건설의 '셀프 디자인 프로젝트' 를 통해 같은 최상층 아파트를 여러가지 구조로 변화 시킬 수 있다.  
 2·3 현대 건설의 서울숲 힐스테이트 45평, 55평 아일랜드 주방.  
 5 주택공사의 판교 47B형 아일랜드 주방

**최** 근 가족과의 친목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일랜드형 주방' 이 확산되는 추세다. 아일랜드형 주방이란, 요리 공간을 주방 중앙에 '섬' 처럼 만들거나 거실 방향으로 돌출시킨 것을 말한다. 기존의 주방에선 주부가 조리나 설거지를 하는 동안 벽과 마주해야 하지만, 아일랜드형 주방에선 거실 쪽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

목동 아파트에 사는 한지연 주부는 "얼굴을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다"면서 한씨는 주방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면서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한다. "아이들과도 더욱 친근해지고 남편과도 더욱 가까워졌다"면서 "무엇보다 요리하면서 아이들과 과제나 공부를 함께 봐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한남동에 사는 김민정 주부는 "주방이 홈바 같다"고 자랑한다. 주방 조명 밝기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녀는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은은하고 잔잔한 조명을 선호한다. 남편과 분위기를 잡기에는 안성맞춤이기 때문. "저희 식탁

의자는 일반 의자가 아닌 홈바에서 볼 수 있는 심플한 의자입니다. 남편과 술 한잔하거나 차를 마실 때도 주방을 애용합니다"라고 말한다.

#### 주부들, '아일랜드 주방' 선호

주택공사가 판교 모델 하우스에 아일랜드형 주방을 설치했다. 공기업인 주택공사 모델 하우스에 아일랜드형 주방이 들어간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종전의 아일랜드형 주방은 대형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을 별도로 설치했지만, 주택공사는 아일랜드 식탁 개념을 도입한 아일랜드형 주방을 선보였다. 이 주방을 설계한 오주희 대한주택공사 주택계획팀 차장은 "주방이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닌, 아이들의 과제를 도와주며 파티를 비롯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방을 새롭게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서울숲 힐스테이트'에도 아일랜드형 주방을 설치해 주부들에게 가족과의 소통 시간을 늘려줬다.



주방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종암2차 래미안도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43평형 주방에 미니 서재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가족 건강을 위한 요리 레서피 검색, 가계부를 쓰거나 영수증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편하게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보고 싶은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방의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것에 있다. 발코니 확장으로 넓어진 실내 공간을 주방을 넓히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상품개발 본부장은 “과거 32평형은 좁기 때문에 거실과 마주보는 아일랜드형 주방을 설계하기 어려웠는데 발코니 확장으로 32평형에도 넓은 주방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맞춤 설계, 맞춤 아파트 시대 열려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과 방도 편의에 따라 구조를 달리해 여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벽산 블루밍의 ‘셀프 디자인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필요에 따른 공간 설계를 가능케 한 맞춤형 평면을 자랑한다. 전국 주요 도시 소비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이뤄진 이 프로젝트는 입주자가 실내 구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공간 구조의 맞춤화, 인테리어 스타일의 선택 등 아파트 평면과 공간에 대한 내용이 주지만 추후에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맞춤화,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의 맞춤, 에너지 절약 시스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입주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 설계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벽산건설 관계자가 설명했다. 주상복합에 주로 적용되던

‘플랫슬라브(벽식 구조가 아닌 벽체를 자유롭게 이동 변경할 수 있는 구조)’ 구조를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도입해 구조 변형 또한 가능하다. 추후 가구 수나 개인적인 취향, 용도에 따라 구조 기둥을 제외한 벽을 제거한 거실, 안방이나 작은 방 등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다. 즉,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 구조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 만점에 편리성까지 부여한 ‘사람 중심의 아파트’ 인 셈이다.

2005년 12월에 분양한 ‘인천 도림지구 블루밍’과 ‘함안 광려천 블루밍’에 이 프로젝트가 도입됐다. ‘함안 광려천 블루밍’ 48평형의 경우 기본인 침실 4개 평면부터 아파트 전체가 원룸처럼 탁트인 스튜디오 타입까지 총 9개의 평면을 선택 가능토록 했다. 또한 4가지 타입의 인테리어와 컬러 선택, 3가지 타입의 거실 컬러 선택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가변형 공간과 인테리어 타입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한 평형에 수십 가지 조합의 주거 스타일을 꾸밀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도 간단한 개조로 방과 거실, 주방 등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보였다. 바로 ‘컨버터블’ 아파트다. ‘컨버터블 하우징’은 다기능·복합·혼용 개념을 도입해 간단한 조작으로 공간 변화가 가능하다. 기존 아파트는 가변형 벽체를 도입하더라도 일단 시공하고 나면 벽을 없애거나 움직일 수 없지만 컨버터블 하우징은 모든 실내 공간을 개조 없이 재배치할 수 있어 손쉽게 공간과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컨버터블 하우징에는 무빙 월(Moving Wall) 및 슬라이딩·폴딩 도어(Sliding Folding Door), 투명도가 조절되는 글라스 및 스마트 조명과 혁신적인 가구 등이 복합 적용된다. 예를 들면, 무빙 월을 통해 거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 활용할 수 있으며, 폴딩 도어

로 실내 공간과 테라스 사이의 벽을 제거함으로써 실내에서도 야경과 밤공기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벽체 수납식 슬라이딩 가구 등의 적용으로 공간을 더욱 여유 있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조명을 이용해 분위기의 변화를 연출해 주방을 요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분위기 있는 바나 카페 공간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다.

### 층과 향을 뛰어넘는 자연과의 조화

실내뿐 아니라 지하와 옥상을 이용해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SK건설의 '남산 리더스뷰'에는 지하 공간에 가구별 전용 창고와 택배 냉동고가 마련된다. 택배 냉동고는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생선이나 축산물 등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물품이 택배로 올 때 경비실에서 보관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지하에 들어설 가구별 전용 창고에는 환기 시스템과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입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보관하는 데 유용하다. SK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이 아파트에 비해 수납 공간이 부족한 점에 착안했다"며 "고급형으로 지어지는 만큼 잡동사니를 따로 보관해 실내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울산 우정동 I PARK는 지하와 옥상을 이용해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1층 가구들(47평형 10가구)을 위한 색다른 공간이 연출된다. 이는 지하 공간이 '스튜디오 하우스'로 변모하는 것. 스튜디오 하우스는 1층 평면에 지하층을 추가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산업개발 상품 기획팀 최정열 팀장은 "우정동 I PARK의 경우 사업지가 경사면이었기 때문에 1층 같은 지하층을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다 스튜디오 하우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1층과 다름없는 지하층을 침실과 다목적실(스튜디오)로 구성해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공간은 음악 및 영화 감상, 아틀리에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비록 경사면이지만 지하층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도록 채광과 환기에 특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 또한 이 아파트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는 아주 특별한 주방이 마련된다. 아일랜드 주방은 기본! 남향 주방과 연결된 테라스까지. 흔히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나 만날 수 있는 탁 트인 뷰와 자연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주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통유리로 구성된 주방과 연결된 7평 규모의 테라스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입주자들은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식사할 수 있고, 특히 손님이 오거나 하면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아도 집안에서 최고급 카페 분위기를 충분히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로 물량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맞춤형 아파트가, 테라스형 주방이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사뭇 궁금하다.

집이 단지 편안히 쉬는 공간이 아닌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입주민의 감성 코드를 읽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좇는 건설사들이 내놓은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 다양한 공간 창조를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1 삼성물산의 중암2차 래미안 43평 주방에 있는 미니 서재 2·3 주택공사에 판교 모델하우스의 61평, 76평 아일랜드 주방

